

잠깐만

## 컴퓨터 용어의 한글과 확산



**요**즘 통신게시판에서 특별하게 주목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컴퓨터 용어의 한글화 계몽이다. 컴퓨터를 셉틀, 디스크를 저장판이나, 새김판으로 워드프로세서를 글틀이란 식으로 뜻이 통하면서 부르기도 편한 우리말로 고쳐쓰자는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있

으며 하이텔의 <한글사랑> 동호회를 비롯하여 몇개의 동호회에서 연대하여 적당한 한글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파일이나 메인프로세서나 다운로드니하는 등 대부분 전문적인 용어와 그와 관계된 용어들이 그대로 사

용되어 한글용어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었고 그동안 적당한 우리말을 붙이는데 소홀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에서 우리것을 찾고자 하는 젊은 통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컴퓨터 용어의 한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

영어로 된 컴퓨터 용어의 한글화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쉬운 우리말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디스크 드라이브(disk drive)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저장판이나 새김판이라고 설명해준 것이 훨씬 이해도 빠를 것이며(비록 현재는 널리 쓰이지 않아 어색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글에 대한 애착심과 편리함을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삼 말하지 않아도 우리글은 아름답고 재미있다. 컴퓨터 용어를 우리말로 고쳐 놓은 것중 잘 활용되는 예가 무른모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무른모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우리말로 바꾼 것으로 “무른(부드러운) 연모(도구)”란 뜻인데 이 말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의 상

호로 태○○ 무른모나 한○○ 무른모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요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잠깐 도스상태로 나갔다가 들어올때 쓰는 말인 도스셸을 “나들이”라고 쓰는데 대부분의 한글 프로그램 메뉴에 보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비슷한 예로 컴퓨터 통신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통신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야기” 덕분에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를 저장하는 기능을 말하는 캡처(capture)라는 말 대신 ‘물건을 잘 정돈하여 간직한다’는 뜻의 우리말인 <갈무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화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는데 무리하게 한글화를 해서 오히려 생소한 느낌이 드는 억지 한글이 될지 모른다는 견해이다. 영어 위주로 되어있던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에 따라 무리하게 바꾸는 것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란 말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올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무리 한글화가 잘 되어어도 널리 쓰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생소한 말이 될 수 밖에 없기에 널리 쓰일 수 있게 하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컴퓨터 통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글용어 쓰기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글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풍조가 컴퓨터 산업 전반에 널리 퍼진다면 영어보다 이해가 쉽고 보기 좋은 우리말로 된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전혀 어색하지 않게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한글용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날이 오기까지 컴퓨터 통신은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독특한 장점으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HiTEL의 S/W플러자 코너에 게재되고 있는 컴퓨터 칼럼니스트인 김현국씨의 글을 옮긴 것이다.>